

명사칼럼

과자와 정치가

일본인 사또에이사꾸(佐藤榮作)라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이름일지 모른다. 일본의 운수관료 출신으로 정계에 투신, 65년부터 72년까지 전후 가장 오랜 기간 일본의 수상직을 맡은 인물이다.

사또수상은 한국과의 인연도 적지 않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72년 5월 오끼나와를 미군정으로부터 일본으로 복귀시킨, 말하자면 전후 일본 정계의 거성(巨星)이다.

필자는 신문기자를 남달리 싫어했다는 그의 개인취향이나 정치적 업적을 굳이 소개할 생각은 없다. 그의 취미가 다른 일본 정치가와와는 유별나서 소개해 보자는 것이다.

사또가 가장 좋아한 것은 얼마전 한국에서 큰 사회악으로 물의를 빚은 빠징꼬(슬롯머신)와 과자였다.

하지만 한나라의 권좌에 앉은 수상이 시중의 빠징꼬가게에 들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총리관저의 출입기자단이 이를 딱하게 여겨 빠징꼬 기계 한대를 구입, 선물했다.

그는 수상직의 격무에 시달리다가 관저에 돌아오면 혼자서 빠징꼬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돈과 경품을 걸지않은 빠징꼬조작은 무미건조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다음으로 좋아한 기호품은 바로 과자였다.

필자가 신문사의 일본특파원으로 도쿄(東京)에 근무하던 75년, 그와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과자와 차를 내와 과자를 먹으면서 필자에게도 과자를 권하는 것이었다.

그의 과자 예찬론은 인터뷰 도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단것을 먹으면 우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풀린다는 것이었다. 그 뿐인가, 판단력도 명석해진다고 했다.

해방 후 가난한 시절에 자란 필자와 같은 세대는 과자라면 으레 눈깔사탕을 연상한다. 당시만해도 설당이 귀해서 설탕자체가 과자대용 노릇을 했고 눈깔사탕속에는 사카린이 감미료로 포함되어 있었다. 운이 좋으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드롭프스, 껌, 초콜릿을 먹을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같은 옛날이야기다.

근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개방화로 세계 어느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과자들이 많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요즘의 어린이들이 과자보다는 생크림이나 핫케이크, 피자 등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새롭다.

과자는 아무래도 간식(間食)감이다. 오후 세네시 쯤, 점심과 저녁사이에 즐겨 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간식을 가리켜 오야쯔(御八)라고 하는 것은, 오후 시간대에 먹는 것에서 온 말이다. 성인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감당(甘當)과 신당(辛堂)으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

「감당」은 문자 그대로 단것을 좋아하는, 어느편인가 하면 과자를 즐겨 드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신당」은 단것보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술을 좋아하면서도 과자도 잘 먹는 혼합형도 없지는 않다.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유복해지면서 비만을 걱정하고, 당뇨병이 두려워 과자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한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소치(所致)인지 모른다.

단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발상은 단견(短見)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좋지않는 법이다. 단것만을 선호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것을 무조건 기피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당뇨병 환자가 지나치게 탄수화물(炭水化合物)섭취를 기피했거나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 쓰러지면 눈깔사탕을 응급치료약으로 먹고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신당」에 속하는 편이지만 과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찬론자임에 틀림이 없다. 과자를 좋아하는 일본 수상의 정치생명이 가장 길었다는 이야기이다.



조두흠 일간스포츠 사장